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 6. 17.(금) 조간 2022.6.16.(목) 11:00	배포 일시	2022. 6. 16.(목) 06:00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국일 (044-200-5960)
		담당자	사무관 추윤식 (044-200-5963)

자동 안벽크레인을 갖춘 부두, 국내 최초로 개장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6부두(2-4단계) 전면개장(6.17.(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자동 안벽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갖춘 부두인 부산항 신항 6부두(이하 '6부두')를 6월 17일(금)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부산항 신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2012년까지 총 5개의 부두를 부산항 신항에 새로 건립해왔다. 또한, 201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온 선박 대형화와 자동화 항만 확산에 맞춰 2012년 부산항 신항 2-4단계에 자동 안벽크레인 8기를 갖춘 안벽 길이 1,050m의 6부두를 건립하기로 하였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로 이관하되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

2016년 2월 17일(수)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올해 5월 16일(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준공 검사를 거쳐 6월 17일(금) 6부두를 본격적으로 개장하게 되었다. 6부두는 건설사업 시행자인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BCT)가 2055년 11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6부두는 17~18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 존재하는 컨테이너 선박들 중 최대 크기인 HMM 알헤라시스호를 비롯한 2만 4천TEU급 컨테이너선들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고, 자동 안벽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어 원격 조종으로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부두로, 그리고 부두에서 선박으로 내리고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역과정의 효율성과 항만하역노동자들의 안전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6부두가 신규 개장됨에 따라 부산항 신항은 현재 22개 선석에서 25개 선석을 보유하게 되며, 매년 195만 TEU 이상의 추가물동량을 처리(연간 1,749만TEU)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항만물동량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장치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 5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 항만들이 세계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부산항 신항 2-5단계, 2026년까지 2-6단계 공사를 마무리 짓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6부두 개장에 따라, 부산항 신항의 물류처리 능력 및 자동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산항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개장될 부산항 신항 2-5단계, 2-6단계 및 부산항 진해신항을 통하여,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을 넘어, 스마트 물류거점 허브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부산항 신항 6부두 사진

□ 전경사진



□ 주요 장비사진

안벽
크레인
(C/C : Container
Crane)

(8기)



야드
크레인
(TC : Transfer
Crane)

(32기)



이송장비
(SC : Straddle
Carrier)

(20기)



참고 2

부산항 신항 현황도

